

# 남북탁구, 스웨덴에서 통일 이루다

‘탁구를 통한 결속’ 표방  
ITTF 재단 창립 기념행사  
단일팀, 즉석 호흡 맞춰



스웨덴 릴리산드 호텔에서 ITTF재단 창립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효원(왼쪽)과 북한의 김남해가 짝을 이뤄 짝짝 시범경기를 벌이고 있다.

남북 여자 탁구 대표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한 팀을 이뤄 특별 이벤트 매치를 벌였다. 3일(한국시간) 국제탁구연맹(ITTF) 본부가 차려진 스웨덴 릴리산드 호텔에서 ITTF재단 창립 기념행사가 열렸다.

ITTF는 세계적 스포츠인 탁구를 매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재단을 만들었다. ‘탁구를 통한 결속’을 표방하고 있다.

남북 연합팀의 짝짝 시범 경기는 재단 창립 행사 중 열렸다. 스크린에 ‘하나의 한국, 하나의 테이블(One Korea, one table)’이란 문구가 뜬 뒤 한국 서효원 양하은, 북한 최현화 김남해가 행사장 가운데로 등장했다.

이들은 서효원-김남해, 양하은-최현화로 짝을 이뤄 복식 시범 경기를 펼쳤다. 특별 심판으로 나선 마영삼 국제연맹 심판위원장이 양하은-최현화조를 ‘한국 연합 1(United Korea)’, 서효원-김남해조를 ‘한국 연합 2’로 소개한 뒤 경기가 시작됐다.

선수들은 정규 탁구대보다 작은 플라스틱 모형 탁구대에서 플라스틱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았다. 이벤트 매치인 만큼 공격을 하기보다 공을 상대방 쪽으로 넘기는 데 집중했다. 네 선수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라켓이 어색한지 서효원이 “어떡해”를 연발하자 김남해가 쪽소하기도 했다. 경기는 3분 가량 이어졌고, 3대3으로 끝났다. 마 위원장이 “공중 우승”을 선언하자 경기를 지켜본 국제탁구연맹 관계자들이 박수를 쏟아냈다.

경기 후 북한 김남해는 “아주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북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일팀으로 나가게 되면 어떨 것 같으나”는 질문에 “같이 힘내서 꼭 1등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 서효원은 “(북한 선수들과) 말이 통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편한 느낌이였다”고 전했다. 한국과 북한은 3일 오후 5시 세계선수권 8강에서 맞붙었다.

이날 남북 연합 시범 경기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국제탁구연맹에 제안해 벌어졌다. 이날 창립 기념회에서 재단 1호 앰배서더로 임명된 유위원은 “남북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이 ‘탁구를 통한 결속’이라는 재단 취지에 잘 맞

는 것 같아 국제탁구연맹에 아이디어를 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1호 앰배서더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남북을 포함해 전 세계에 탁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행사를 찾은 주정철 북한탁구협회 서기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탁구 단일팀 논의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아시안게임 단일팀은 현재 한국 탁구계의 최대 관심사다. 주 서기장은 “우리 탁구계는 긍정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오간 얘기는 아직 없다. 위에서 어떻게 결정하

는지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탁구협회는 이미 엔트리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수립한 상태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남북이 개인전은 각자 원래대로 출전하고, 단체전만 5명씩 합쳐 10명(3명 출전)으로 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마친 상황”이라며 “엔트리가 축소되는 등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단일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모았다”고도 했다. /뉴시스



## 리버풀, 11년만에 UEFA 챔스 결승행

AS로마에 2-4로 패배했으나  
1차전서 5-2로 이겨 승점차로  
27일 레알 마드리드와 단판 승부

리버풀(잉글랜드)이 AS로마(이탈리아)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안착했다. 리버풀은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 2차전에서 AS로마에 2-4로 패했다.

안방 1차전에서 5-2로 이긴 리버풀은 1,2차전 합계 7-6으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리버풀이 이 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2006~2007시즌 이후 11년 만이다.

리버풀은 27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우승컵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인다.

1차전 대승을 등에 업고 원정길에 오른 리버풀은 전반 9분 사디오 마네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공격에 치중하던 로마는 이어없는 패스 미스로 선제골의 발미를 제공했다.

전반 15분 AS로마가 만회골을 가져갔다. 리버풀 수비수 데얀 로브렌이 견어낸 공이 제임스 밀너의 머리에 맞고 자책골로 연결됐다.

리버풀은 전반 25분 다시 치고 나갔다. 조르디니오 바이날 돌이 장신 수비수 사이를 뚫고 헤딩슛에 성공했다. AS로마는 전반 37분 스테판 엘 샨타워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AS로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들어 반격이 더욱 거세졌다. 후반 7분 에딘 제코가 오른발로 골맛을 봤다. 스코어는 2-2, 합산 스코어는 7-4 리버풀의 리드가 됐다.

로마에게는 세 골이 더 필요했다. 로마는 후반 41분 라자 나잉골란의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흔들면서 불씨를 살렸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페널티킥 골로 합산 스코어 6-7을 만들었지만 남은 시간이 부족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악 내 다리... 류현진, 애리조나전서 2회 자진광판

올해 LA 다저스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던 류현진(31)이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1¼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다.

이날 류현진은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직구의 움직임이 날카로웠고, 변화구의 각도도 좋았다. 그러나 2회말 1사 후 데번 마

레로와 상대할 때 공을 던진 후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했다.

다리 쪽에 통증을 호소한 류현진은 스스로 몸상태를 체크해 봤지만, 더 이상의 투구는 어렵다고 판단해 마운드를 내려왔다.

류현진은 올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12을 기록하고 있다. 수술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다저스 선발투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사실상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다. 그러나 부상으로 다시 한 번 위기에 놓였다. 4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뉴시스

## 추신수, 클리블랜드전 2안타 1타점...타율 0.252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6)가 3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추신수는 2017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코리 클루버를 상대로 첫 안타를 쳐냈다. 이 경기 전까지 클루버에게 단 한 차례도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시즌 타율은 0.252로 끌어 올렸다.

1회초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2회 클루버의 초구(컷패스트볼)를 받아쳐 중전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6회 잘 맞은 타구가 상대 2루수 정면으로 날아가 아웃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추신수는 3-10으로 끌려가던 8회 적시타를 날렸다. 1사 3루에서 중전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시즌 15타점째.

텍사스는 4-12로 완패를 당했다. 텍사스는 시즌 12승20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